

Hana Market Weekly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4. 10. 14

주간 달러/원 동향(10/7~10/11) 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 9월 비농업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 추가 빅컷 기대감 소멸과 글로벌 강달러에 환율은 10원 넘게 급등하며 출발. 이어 중동 전면전 우려 속 위험회피 심리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 경계감을 반영하며 추가 상승
- 중반, 한글날 공휴일로 휴장
- 후반, 한국 WGBI 편입 소식 등 원화 강세 요인에도 예상보다 호키시한 FOMC 의사록에 따른 강달러에 소폭 상승. 이어 주 후반, 10월 금통위에서 피벗 결정했으나 연내 추가 인화 기대를 제한한 점 등 매파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하락 전환 후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346.3	1,351.0	1,343.5	1,349.5	+3.2

달러/원 전망

- 미국 9월 생산자물가 하락 등 전반적인 물가지표 흐름이 예상경로에 부합한다는 점 등이 달러 약세 지지력으로 판단. 하지만 여전히 우호적인 지표에도 매파성향을 보이는 연준 인사 언급 등이 일부 달러 약세 제한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최근 다시 1,350원대를 회복한 환율 수준을 고점으로 인식할 수출업체 등의 네고 물량 출회 등이 환율 상단 제한할 요인으로 전망

예상거래범위
1,340원 ~ 1,355원

엔·유로화 동향 (10/7~10/11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미 비농업 고용 호조 여파 속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유로존 소매판매 데이터와 ECB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유로화는 약보합 출발. 이어 국제유가 급등세가 완화되자 위험 선호 심리가 유입된 가운데 유로화는 소폭 강세를 보임
- 중반,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 속 ECB 10월 금리인하 전망에 힘이 실리며 약세 압력이 가중됨
- 후반, ECB 9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된 영향에 추가 약세를 시현. 이어 주 후반, 미 PPI 둔화에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완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폭을 일부 되돌리며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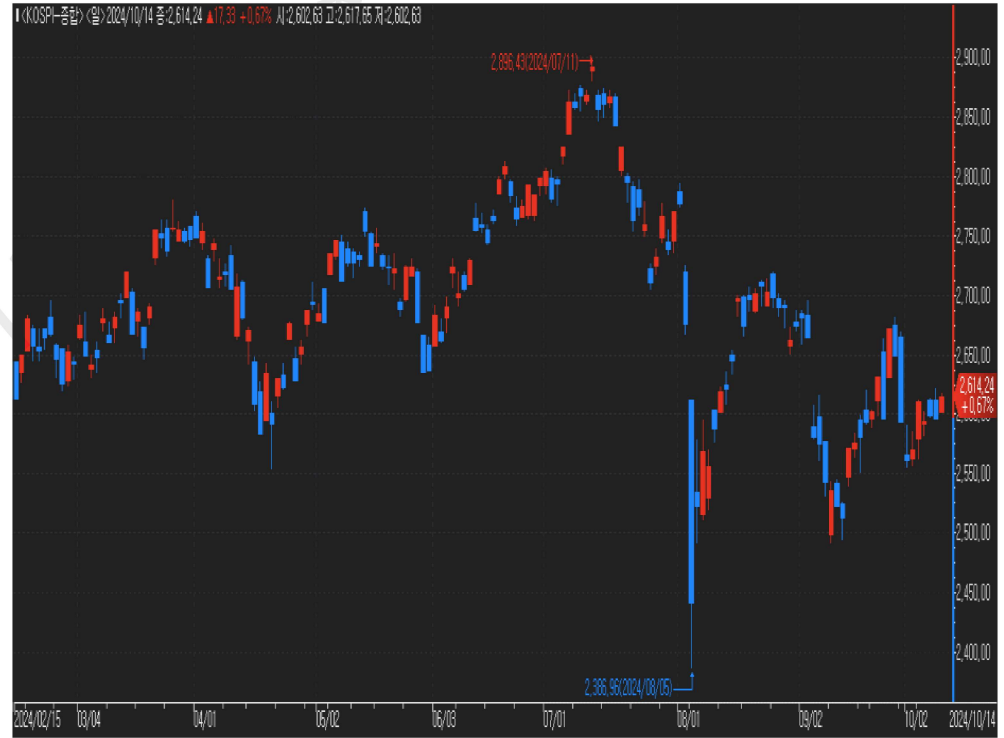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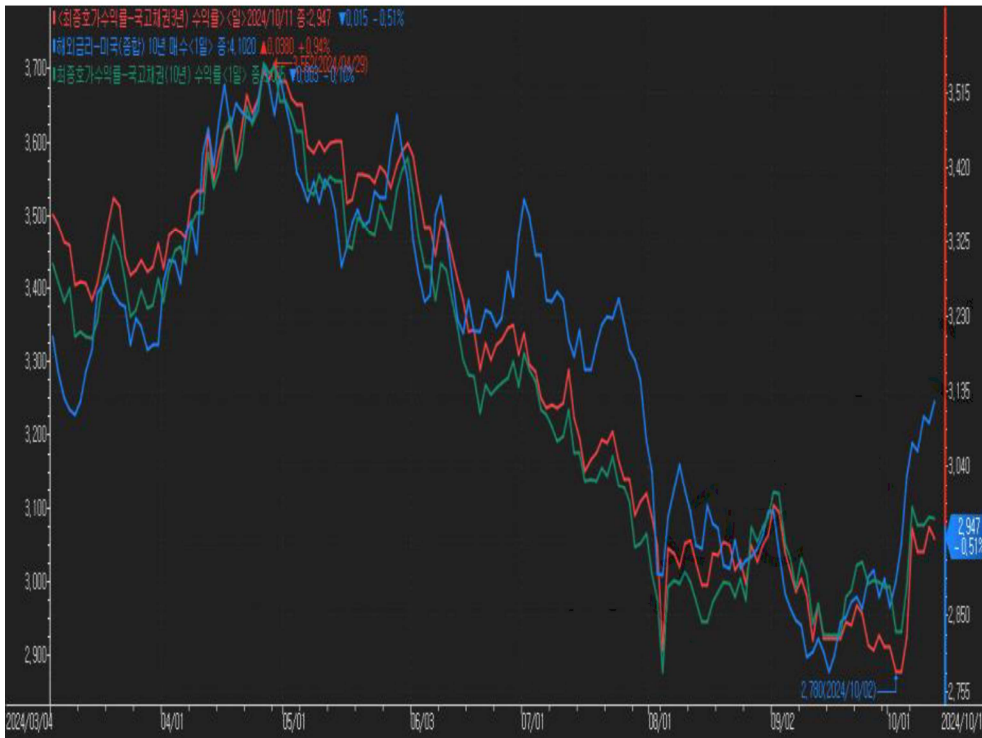
엔화 동향

- 주초, 급격한 환율 변동성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낸 일본 외환 당국 관계자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엔화는 강세로 출발. 이어 시장은 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약세로 전환
- 중반,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FOMC 의사록으로 인한 연준 추가 빅컷 기대 후퇴와 미 국채금리 급등에 149엔대로 상승
- 후반, 경제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금리인상을 지지하겠다는 히미노 BOJ 부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강세 전환. 이어 주 후반, 연준 관계자가 금리인하에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자 달러 대비 약세 전환 후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975	1.0997	1.0900	1.0938	-0.0037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8.7	149.6	147.3	149.1	+0.4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10/7~10/11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미국의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한 가운데 실업률도 4.1%로 둔화한 영향 등에 따라 미 국채금리가 단기 구간에서 급등 양상 시현. 국고채 금리는 이를 반영한 가운데 외국인 순매도 영향의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상승 출발. 이어 고용 여파에 미 국채금리는 상승세 이어갔음에도 우리나라의 WGBI 편입 기대감 등으로 국고채 시장 강세 압력 속 금리 하락 전환
- 후반 들어, 한글날 연휴기간 중 우리나라 WGBI 편입 소식에 국고채 시장 강세 등으로 금리 하락 국면이 나타났지만, 금통위와 미 물가 발표 등의 이벤트 경계감 속에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에 따라 상승 전환. 이어 주 후반, 한은의 전격적 금리인하 단행 속에 시장의 도비시적인 인하였다는 반응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하며 마감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코스피는 미국 9월 고용이 예상보다 호조를 띤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며 위험자산 선호 강화에 상승 출발. 이어 삼성전자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을 반영, 반도체 업종이 크게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 하락을 견인
- 후반 들어, 반도체주가 강세 전환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 등으로 소폭 강보합 전환 속, 주 후반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25bp 인하 소식에도 기반영된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큰 폭 순매도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